

현대시의 운율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香氣)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줄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生氣)가 뛰놀아라.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香氣)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生氣)가 뛰놀아라

운율(韻律)

압운(rhyme) : 소리의 공간적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위치의 반복.
일정한 위치에서 일정한 소리가 위치하는 규칙성.

율격(metre) : 일정한 소리의 시간적 반복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소리의 시간적 질서에 기초한 거리의 반복.

무심(無心)

김억

평양(平壤)에도 대동강(大同江) 나간물이라
생각을 애에말까
해도 그리워
다시금 요심사(心思)가 안타까워서
이가슴 혼자로서 광광 칩니다.

얄밋다 말을할가
하니 얄밋고,
그립다 생각하니 다시 그리워
생시(生時)랴 꿈에서랴 닛을 길 없어
어굴한 요심사(心思)에 내가 읊니다.

공중(空中)을 나는새도 깃을 뒹길래
오갈제 산(山)을 싸고
돌지 안튼가
못잊어 원수라고 속이 상킬래
이 가슴 혼자로서 부숴드립니다.

정형시로 운율을 읽는 한계

1. 정형시에서 도출된 율격 개념은 **자유시를 논의하는 유의미한 준거가 되기 어렵다.**
2. 율격을 음보(마디) 개념으로만 설명하면 자유시를 정형성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결과가 된다.
3. 음보(마디)에 기반을 두어 시를 설명하면, **압운의 가능성**이 부정된다.

현대시의 운율은 전체가 아닌 **부분에서 관찰된다**는 현상이다. 현대시는 음보나 음성 상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운율적 요소를 품고 있다.

머언 산(山) 청운사(靑雲寺)

낱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름나무

속스 앞 피어가는 열두 굽이를

청(靑)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박목월, <청노루>

‘행’과 ‘연’의 자립성

속잎을 피워내는 느릅나무(가 있는 산의)

구비구비를 (돌아내려오는/올라가는)

청노루의 눈에 구름이 돌면서 (비친다)

1) 느릅나무가 가지마다(열두 구비)

속잎을 피워낸다

2) 느릅나무의 속잎처럼 청노루의 눈알이 맑
다

3) 산굽이처럼 구름이 돈다

山

절망의산,

대가리를밀어버

린, 민둥산, 벌거숭이산

분노의산, 사랑의산, 침묵의

산, 함성의산, 증인의산, 죽음의산

부활의산, 영생하는산, 생의산, 회생의

산, 숨가쁜산, 치밀어 오르는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산, 꿈의산, 그러나 현실의산, 피의산,

피투성이산, 종교적이난, 아아너무나너무나 폭발적인

산, 힘든산, 힘센산, 일어나는산, 눈뜬산, 눈뜨는산, 새벽

의산, 희망의산, 모두모두절정을이루는평등의산, 평등한산, 대

지의산, 우리를감싸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감싸주는어머니

황지우, <무등(無等)>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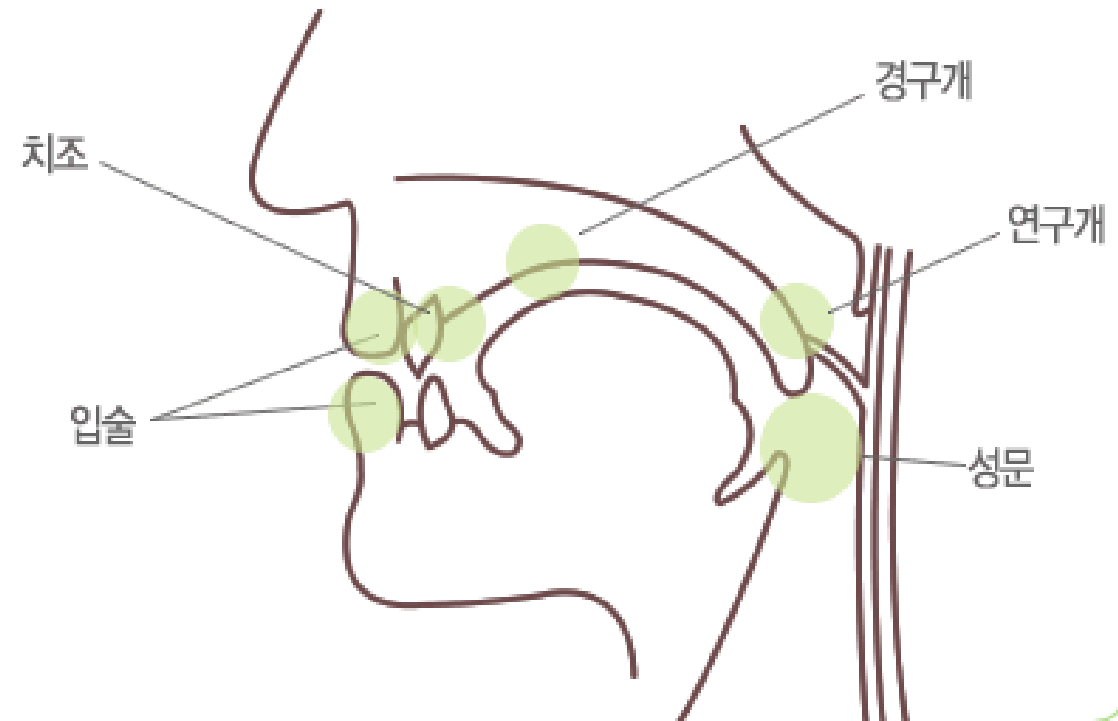
입술(ㅁ,ㅂ,ㅍ,ㅌ)

치조(ㄴ,ㄷ,ㄹ,ㅍ,ㅅ,ㅆ,ㄷ)

경구개(ㅈ,ㅊ,ㅊ)

연구개(ㄱ,ㅋ,ㅋ,ㅇ)

성문(ㅎ)



이제 나는, 유리병, 동 파이프, 고무벌레, 붉은 벽돌, 거미줄,
안개, 비상구, 접시, 세탁소, 푸른 항구, 불난 집, 가방, 끈
떨어진 꾸러미, 자동차, 사라진 구름, 발, 발 발, 밤, 밤, 밤.

박상순, <빨리 걷다>

이제 나는, 유리병, 동 파이프, 고무벌레, 붉은 벽돌, 거미줄,
안개, 비상구, 접시, 세탁소, 푸른 항구, 불난 집, 가방, 끈
떨어진 꾸러미, 자동차, 사라진 구름, 발, 발, 발, 밤, 밤, 밤.

박상순, <빨리 걷다>

후, 후, 후, 후! 하, 하, 하, 하!

후, 후, 후, 후! 하, 하, 하, 하!

후, 하! 후, 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땅바닥이 뚛다, 나무가 뚛다.

햇빛이 뚛다, 버스가 뚛다, 바람이 뚛다.

창문이 뚛다. 비둘기가 뚛다.

머리가 뚛다.

앞 진 나뭇가지 사이

하늘의 환한

맨몸이 뚛다.

허파가 뚛다.

하, 후! 하, 후! 하후! 하후! 하후! 하후!

뒤꿈치가 들린 것들아!

밤새 새로 반죽된

공기가 뚛다.

내 생(生)의 드문

아침이 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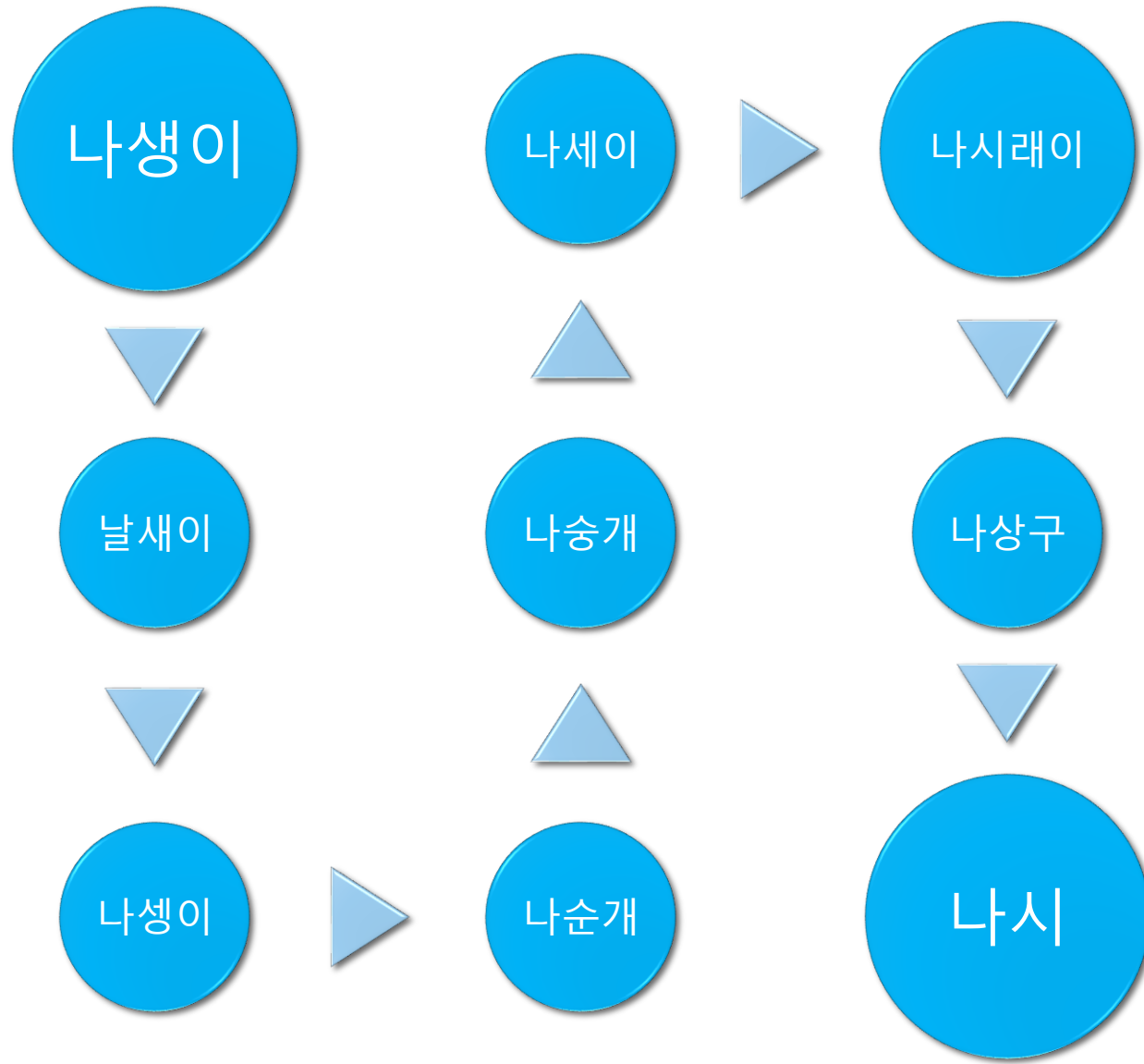
독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다.

황인숙, <조깅>

나생이는 냉이의 내 고향 사투리
울 엄마도 할머니도 순이도 나도
나생이꽃 피어 쇠기 전에
철따라 다른 풀잎 보내주시는 들녘에
늦지 않게 나가보려고 조바심을 낸 적이 있다
아지랑이 피는 구름에 앉아 따스한 소피를 본 적
이 있다
울 엄마도 할머니도 순이도 나도
그 자그맣고 매춤하니 싸아한 것을 나생이라 불
렀는데
그 때의 그 '나새이'는 도대체 적어볼 수가 없다
흙살 속에 오롯하니 흰 뿌리 드리우듯
아래로 스며드는 발음인 '나'를

다치지 않게 살짝만 당겨 올리면서
햇살을 조물락거리듯
공기 속에 알주머리를 달아주듯
'이'를 굴글려 '새'를 건너가게 하는
그 '나새이'
허공에 난 새들의 길목
울 엄마와 할머니와 순이와 내가
봄 들녘에 쪼그려 앉아 두 귀를 모으고 듣던
그 자그마하나 수런수런 깃 치는 연두빛 소리를
그 짜릿한 요기(尿氣)를

김선우, <나생이>



당신의 텍스트 10 – 화면조정시간

성기완

눈 속에서 모래알이 씹힌다
텅 빈 모텔
이미 떠난 당신
사랑은 오래 못 참고
속절도 없이
치————

네게로

최승자

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콜처럼
알콜에 엉기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처럼
네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 균처럼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

귀기우려도 있는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우에 무수한 밤이 왕래하나
길은 항시 어데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

아- 반딧불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우름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속에 숨기어가지고...너는,
무언의 해심(海深)에 홀로 타오르는
한낱 꽃같은 심장으로 침몰하라.

아- 스스로히 푸르른 정열에 넘쳐
둥그란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는 바다,
바다의깊이우에
네구멍 뚫린 피리를 불고... 청년아.
애비를 잊어버려
에미를 잊어버려
형제와 친척과 동모를 잊어버려,
마지막 네 계집을 잊어버려,

알래스카로 가라 아니 아라비아로 가라
아니 아메리카로 가라 아니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 침몰하라. 침몰하라. 침몰하라 !
오- 어지러운 심장의 무게우에 풀잎처럼 훑날리는 머리칼을 달고
이리도 괴로운 나는 어찌 끝끝내 바다에 그득해야 하는가.
눈 뜨라. 사랑하는 눈을뜨라 ... 청년아,
산 바다의 어느 동서남북으로도
밤과 피에젖은 국토가 있다.

알래스카로 가라!
아라비아로 가라!
아메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서정주, <바다>

長壽山 1

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람도리 큰술이 배허짐죽도 하이 글
 이 울어 멍아리 소리 제르렁 돌아음죽도 하이 다람귀
 도 좇지 않고 외새도 울지 않아 깊은산 고요가 차라리
 배를 저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
 을 기달려 흰 뜻은 한밤 이글울 걸음이란다? 웃절 중이 어
 섯판에 여섯번 지고 웃고 올라 간뒤 조찰히 늙은 사나히의
 남긴 내음을 쫓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싹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几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長壽山속 겨울 한밤내—



진눈깨비 속을
웅크려 헤쳐 나가며 작업시간에
가끔 이렇게 일보러 나오면
참말 좋겠다고 웃음 나누며
우리는 동회로 들어선다

초라한 스물아홉 사내의
사진 껍질을 벗기며
가리봉동 공단에 묻힌 지가
어언 육년, 세월은 밤낮으로 흘러
뜻도 없이 죽음처럼 노동 속에 흘러
한번쯤은 똑같은 국민임을 확인하며
주민등록 경신을 한다

평생토록 죄진 적 없이
이 손으로 우리 식구 먹여살리고
수출품을 생산해 온
검고 투박한 자랑스런 손을 들어
지문을 찍는다

아
없어, 선명하게
없어,
노동 속에서 문드러져
너와 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지문이 나오지를 앓아
없어, 정형도 이형도 문형도
사라져 버렸어
입석경찰은 화를 내도
긴 노동 속에
물 건너간 수출품 속에 묻혀
지문도, 청춘도, 존재마저
사라져 버렸나봐

몇 번이고 찍어 보다
끝내 지문이 나오지 않는 화공약품 공장
아가씨들은 끝내 울음이 북받치고
줄지어 나오는, 지문 나오지 않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존재조차 없어
강도질해도 흔적도 남지 않을거라며
정형이 농지꺾여도
더이상 아무도 웃지 않는다

지문 없는 우리들은
얼어붙은 침묵으로
똑같은 국민임을 되뇌이며
파편으로 내리쬐히는 진눈깨비 속을 헤쳐
공단 속으로 묻혀져 간다
선명하게 되살아날
지문을 부르며
노동자의 푸르른 생명을 부르며
되살아날
너와 나의 존재

노동자의 새봄을
부르며 부르며
진눈깨비 속으로,
타오르는 갈망으로 간다

박노해, <지문을 부른다>

참고문헌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오규원, 《현대시작법》, 문학과지성사, 1990.

정끝별, <현대시 리듬 교육에 대한 시학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5, 한국근대문학회, 2006.

최현식, <한국 근대시와 리듬의 문제, 《한국학연구》 30,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13.

한수영, <한국 근대시 운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http://archive.adanmungo.org/ebook/1453862772.8033/1484551742.0035/mobile/index.html#p=16>, 검색일자 2021.05.12